

그룹공채 1기 희망을 싹 틔우다

사진 찍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신입
사원들. 말은 그렇게 해도 사보 표지를 장식할 사진이
기에 '센터' 경쟁이 치열했다는데(웃음). 삼표산업 설
비팀 박순현 사원은 "봄호 사보 표지를 장식한 만큼
그룹공채 1기의 자부심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
주겠다"며 남다른 포부를 드러냈다. 눈부신 미소와
빛나는 열정을 가진 27명의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당
당한 삼표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봄별을 닮은 신입사
원의 힘찬 첫 걸음을 삼표그룹이 응원한다.



봄, 싱그러운 시작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계절



Special Theme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계절	02
테마 Talk! Talk!	삼표인의 즐거운 취미 생활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홍석진 사원 (주)삼표 물류기획팀 구윤모 사원	04
테마 프리즘	혼놀족의 활력 생활 가이드	08
—		
Hot Issue	(주)삼표시멘트로 사명 변경	10
꿈과 꿈	(주)삼표산업 혼화제공장	14
New Face	2017년 그룹공채 1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현장	18
SOS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심폐소생술 사례	20
삼표의 어제와 오늘	삼표의 오늘을 만든 절약(節約)의 힘	22
—		
오늘은 내가 쓴다	힘내라 우리 언니! (주)삼표시멘트 업무지원팀 박주영 사원	24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 지식	충무공 이순신의 眞情性(진정성)	26
포토 이벤트	시작, 그 설렘의 순간	28
따뜻한 밥상	이름 없는 풀, 이름 없는 꽃은 없다	30
Topic & News		32
삼표인 소식		38
Quiz & Notice		39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봄.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색깔과 냄새가 바뀌는 이 마법 같은 계절은

기분 좋은 설렘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우리네 삶에도

어쩌면 이런 마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조로운 일상에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푹 빠져 집중했던 어린 시절 당신의 열정을 소환하는 거죠.

아이들의 ‘놀이’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처럼 어른들의 ‘취미’ 역시 업무와

선순환을 이루며 혁신적인 발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새롭게 단장한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이

즐거운 취미 생활 가이드와 함께 두근두근 기분 좋은 봄날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www.sampyo.co.kr

발행일 2017년 4월 27일(계간·비매품·사내한·통권 54호) **발행인** 이종인 **편집인** 이소정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전화** 02-6270-0767

편집·디자인 네오메디아 **인쇄** 영은문화사

삼표인의 즐거운 취미 생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각종 취미 생활은

직장인에게 특별한 활력소가 된다.

스포츠와 가족공예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홍석진 사원과

구윤모 사원. 두 남자의

이색 취미 생활을 소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이소정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관리공무팀 홍석진 사원

킥복싱부터 무에타이, 권투, 주짓수, 종합격투기까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두루 섭렵했다. 대한무에타이협회 챔피언십 전국 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기도 한 익스트림 스포츠 광(狂)으로 터질 듯한 에너지의 소유자.

숨겨진 열정을 발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Q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_____ 처음에는 저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대학생 때 처음 킥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킥복싱에서 무에타이로, 권투로, 주짓수로 점차 종목 을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스포츠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세계에 입문하게 된 순간이었죠.

Q 2014년부터 3년 연속 스파르탄 레이스(전 세계 40 개국, 130개 지역에서 열리는 글로벌 장애물 레이스)에 참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 요?_____ 두 번째로 참여했던 2015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고난도로 꼽히는 20km를 뛰었거든요. 보통 20km라고 하면 마라톤처럼 평지라고 생각하는데, 스파르탄 레이스는 산 정상을 10번 정도 넘는 극한 장애물 레이스입니다. 모래 주머니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밧줄 오르기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친구들을 모아 출전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버텼죠. '열정이 폭발한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손에 상처도 많이 남았지만 완주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Q 익스트림 스포츠,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 집니다. 일과 스포츠, 모든 것에 열정적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_____ 항상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짓수를 하다 인대가 끊어져 몇 달 고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느끼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체육관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 오는 거죠.

Q 익스트림 스포츠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만의 스포츠라는 생각도 들어요._____ 스스로 소심하거나 자 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지닌 열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격투기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희는 이것을 '색깔'이라고 표현합니 다. 그 색깔을 찾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기력이 더 좋은 경우도 많고요.

Q 2017년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취미가 있나요? 작년 10월에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 고 있습니다. 가끔은 서프라이즈로 아내를 찾아가 꽃을 건 네곤 합니다. 아내가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드라이플라워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직 접 만들어 선물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삼표 물류기획팀
구윤모 사원**

구윤모 사원의 취미는 가죽공예. 조금 모나고 뻘뻘해진 부분이 있어도 직접 만든 가죽 가방에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한다. 가죽공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올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로 가죽공예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가죽공예의 세계로 삼표 가족을 초대합니다.”



나만의 맛을 한 땀 한 땀 새기는 가죽공예

Q 가죽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_____군대에서 선임들의 군복을 줄여주면서 바느질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한창 멋 부리기 좋아할 나이에 꾸밀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죠. 제대한 후 DIY 붐이 일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과 연결된 가죽공예를 배우게 됐습니다. 가죽공예도 결국 바느질이거든요. 일반 바느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을 양쪽에서 꿰맨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가죽공예에서는 ‘엮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해보는 탓에 애를 많이 먹기도 했어요. 손에 굳은살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Q 가죽공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_____가죽과 관련된 단어 중에 ‘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일반 제품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구식이 됩니다.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가죽 제품은 사용하는 사람의 손때가 묻어 제각각 다른 맛을 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 제품을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마 가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가죽공예의 매력으로 에이징을 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흔히 가죽공예라고 하면 ‘비싸고 어렵다’ 혹은 ‘섬세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죽공예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떠한지요?_____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집중력과 꼼꼼함이 중요한 공예거든요. 가죽공예는 한자리에 앉아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해야 하니까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죽공예가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지만요. 저는 취미란 꼭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길 수 있느냐’죠. 즐겁다면 그냥 하면 돼요.

Q 2017년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_____사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제 봄이니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할 겸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메라를 하나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Q 끝으로 삼표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_____하이퍼리얼리즘 정중원 화가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말하는대로>에서 ‘이 세상 누구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결국 자신을 공산품으로 만들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가죽 제품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맛을 간직한 것처럼 삼표 사우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놀족의 활력 생활 가이드

혼자서도
잘해요

혼밥(혼자 먹는 밥),
혼행(혼자 떠나는 여행) 등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노는 시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
이야말로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자신만의 오롯한 시간을 통해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글 안신혜

천천히
음미하는
혼밥의 매력

원하는 메뉴를 자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맛
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이 혼자 먹는 밥의
매력. 혼밥 초보자들을 위해 바 테이블이
있는 소규모 식당을 추천한다.

라멘 베라보(포항 상원동, 서울 망원동) : 일본
라멘 전문점이자 포항 유명 맛집으로 서울에
도 지점이 있다. 시오라멘(7,000원)과 쇼유라
멘(8,000원)이 대표 메뉴다. 오픈형 주방이라
음식을 기다리면서 조리 과정을 구경하는 것
도 소소한 재미.

싸움의 고수(서울 회기동, 울산 무거동 등) : 혼
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1인 보쌈 체인점이
다. 스물, 미디엄, 라지 중에서 음식의 양을 선
택할 수 있고 고기나 밥 등이 부족하면 추가
주문하면 된다. 가격은 4,400원부터.

책을
안주로
혼술 한잔
어때요?

무료한 주말 저녁, 캔맥주가 지겹다면 술
을 비롯한 각종 음료를 제공하는 책방에서
‘치맥’ 대신 ‘책맥’을 즐겨보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책과 술의 조화.

청춘문화싸롱(서울 서교동) : 안락한 공간의 만
화 카페. 2만여 권의 만화책과 그래픽 노블을
소장하고 있다. 이층침대를 연상케 하는 칸막
이 다락방, 폭신한 1인 소파 등 편한 자세로 앉
거나 누워 책과 술, 음료, 간단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1시간에 3,000원.

퇴근길 책 한잔(서울 염리동) : 커피, 차, 맥주,
와인 등 단출한 메뉴와 함께 수백 권 이상의 책
을 보유하고 있다. 종종 영화 상영, 난독 콘서
트 같은 재미있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맥주,
와인 4,000원부터.

모으고
조립하고
색칠하는
나만의 컬렉션

애니메이션 피규어 수집, 건담 프라모델
조립 등은 이제 어른들도 즐기는 취미 생
활의 한 분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건담 베이스(서울, 대전 등) : 건담 프라모델이
가득한 상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
지에 매장을 운영한다. 건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구하기 힘들다는 각종 모델
을 만나볼 수 있다.

건담 프라모델 도색과 개조(cafe.naver.com/
custbil) : 건담 프라모델 리뷰, 부분 도색과 전
체 도색 작품, 도색 작업기 등을 볼 수 있다.

키덜트 드림 놀이터(cafe.naver.com/chok
san7) : 피규어 신제품 발매 정보, 피규어 관련
전시회 일정 등을 공유한다.

근사한
하루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

가죽공예, 베이킹, 꽃꽂이 등 배우고 싶은
건 많지만 비싼 수강료 때문에 고민이라면
원데이 클래스를 이용해보자. 비교적 저렴
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문화상점(cafe.naver.com/panda
market) : 각 지역 원데이 클래스와 플리마켓
정보를 제공한다. 투명 젤 립스틱, 선인장 캔들,
손뜨개 등 다양한 수업 공지가 올라온다.

재미 공작소(서울 문래동, blog.naver.com/
studiozemi) : DIY 목공 원데이 클래스를 비롯
해 나만의 굿즈 만들기, 시 창작, 그림책 만들
기 등 4~8주 단기 수업을 진행한다.

반려식물로
힐링하는
홈 가드닝

그린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기 정화 기
능까지 발휘하는 홈 가드닝. 책상 위의 작
은 화분 하나가 선사하는 활력은 생각보다
크다.

슬로우 파마씨(www.slowpharmacy.com) : 살
뜯한 보살핌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을 제
공하는 실내 가드닝 전문 쇼핑몰. 이끼 테라
리움(유리 그릇 속 작은 정원)과 비커 선인장
이 인기 품목이다. 이끼 테라리움은 1만 500원
부터.

〈화초 기르기를 시작하다〉(진영은 저) : 식물 초
보자를 위해 화초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 햇빛, 온도 조절, 화분갈이 등 식물들
잘 키우기 위한 재배 포인트를 알려준다.

삼표시멘트

새 옷 입고 더 높이 비상하다!

2015년 삼표그룹은 아시아 단일 공장 생산 규모 1위의 동양시멘트를 인수해 업계를 놀라게 했고, 2016년에는 그룹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며 건설 소재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올봄, 마침내 동양시멘트가 삼표시멘트로 사명을 바꾸면서 삼표그룹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우리 그룹이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글 홍보팀 김선영

SAMPYO

- 2015
동양시멘트(주) 인수
- 2016
그룹 최대 실적
- 2017
동양시멘트(주),
(주)삼표시멘트로
공식 사명 교체

수직계열화 완성의 성공 사례를 써나간다

삼표시멘트와의 인연은 1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9월, 삼표그룹은 아시아 최대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콘크리트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삼표그룹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었다. 동양시멘트 역시 삼표그룹의 활발한 투자와 지원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삼표그룹과 동행을 시작한 2015년도 연구 개발(R&D) 비용은 약 1억 9,000만 원에 그쳤지만, 2016년도에는 1,952% 증가한 약 39억 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매출 6,159억 원과 당기 순이익 50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재도약에 대한 가능성과 저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1년간의 발자취를 지켜본 업계와 언론은 삼표그룹과 동양시멘트의 합병은 “레미콘사가 시멘트사를 인수해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삼표그룹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삼표기술연구소

SAMPYO
Cement

혁신 50년 + 역량 60년

하지만 동양시멘트라는 이름과 관련해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삼표그룹의 다른 건설 기초 소재 계열사들이 삼표산업, 삼표기초소재, 삼표피앤씨와 같이 ‘삼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반면, 동양시멘트만이 옛 그룹의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 소속이라는 것을 한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이 모두 융합하고 결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들을 심사숙고한 끝에 지난 3월 24일, 동양시멘트는 강원도 삼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공식 사명을 ‘삼표시멘트’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계열사들과 같이 사명을 일원화함으로써 대외적인 혼선을 막고 임직원 간의 일체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삼표시멘트 최병길 대표는 삼표그룹 50년의 혁신과 삼표시멘트 60년의 역량을 합쳐 만들어갈 시너지와 더욱 끈끈한 임직원들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삼표시멘트 최병길 대표

Q 동양시멘트가 (주)삼표시멘트로 새롭게 태어난 지금 삼표그룹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과의 C 일체화를 계기로 그룹이 보유한 골재, 레미콘, 슬래그 등 기초 소재 전 제품군에 걸친 최고 기술력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콘크리트 토털 솔루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고객인 레미콘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나아가 최신 기술 정보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OSS) 프로그램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끄는 콘크리트 산업의 리더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Q 삼표시멘트 인수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볼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현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그룹 내 임직원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가장 중

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룹에 몸담은 이들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역시 회사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임직원의 내부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투자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Q 사명 변경으로 진정한 하나가 된 삼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콘크리트 연관 산업 종사자들은 기술 개발이나,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긴밀히 협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표시멘트, 봄을 만끽하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봄의 한가운데. 만개한 꽃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어디로 꽃구경을 갈까?’ 하며 계획을 세운다. 삼표시멘트의 새 이름도 이제 막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사무실 책상 위의 문서, 서로 주고받을 명함, 사원증, 엘리베이터 등 일상 곳곳에서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C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삼표시멘트와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상상해보자. 그리고 삼표그룹의 봄을 마음껏 즐겨보자.



▲ 지난 3월 24일 동양시멘트(주)는 강원도 삼척 본사에서 열린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명을 (주)삼표시멘트로 교체한다고 밝히며 삼표그룹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강화했다.





설립 8년 만에 국내 혼화제 산업을 선도하다



현장의 특성들을 반영한 데이터로 자체 비교 시험을 진행해 빅데이터화했고, 덕분에 어떤 현장에서든지 혼화제 황금 비율을 찾아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동종 업계에서 레미콘, 시멘트, 골재, 기술연구소와 혼화제공장을 모두 보유한 회사는 삼표가 유일하다.



작지만 강하다

2009년 설립된 삼표산업 혼화제공장은 26개의 그룹 레미콘 공장, 4개의 PC/Pile 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 건설사의 혼화제 적용과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완공된 제2롯데월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새천년대교(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주탑 사장교, 201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국내 건축물은 물론 포스코 건설사의 우즈베키스탄 고속도로 같은 해외 토목공사에도 삼표산업 혼화제공장의 제품이 적용됐다.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혼화제 개발로 콘크리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다. 2.3t/m³의 레미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혼화제량은 약 3kg이다. 전체 생산량의 0.1%에 불과한 소량이지만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제품 생산에 있어 혼화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후발 주자에서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다

삼표시멘트 인수로 인한 수직계열화 완성은 삼표산업 혼화제 공장만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콘크리트의 원료가 되는 시멘트, 골재 부문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현장의 특성들을 반영한 데이터로 자체 비교 시험을 진행해 빅데이터화했고, 덕분에 어떤 현장에서든지 혼화제 황금 비율을 찾아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동종 업계에서 레미콘, 시멘트, 골재, 기술연구소와 혼화제공장을 모두 보유한 회사는

삼표가 유일하다.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 덕분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설립 8년 만에 국내 혼화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본사 품질경영본부 및 기술연구소와 협업 시스템을 갖춘 것 역시 삼표산업 혼화제공장만의 차별점이다. 지난 2012년에는 삼표 기술연구소,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개발한 '저탄소 콘크리트'용 혼화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19명의 직원이 고군분투하며 얻은 쾌거다.

삼표산업 혼화제공장의 최종 목표는 원료 업체와 협업해 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원료 공급원을 통해 원료 발굴과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혼화제 원료와 콘크리트의 상호작용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직접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혼화제 산업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일본이나 유럽의 품질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 원료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은 필수다. 레미콘 시장 외의 새로운 시장에 적용 가능한 혼화제를 개발하는 것도 혼화제공장의 숙원 과제다. 기초 건설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항만, 건축물 리모델링, 보수 보강 등 신규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도 19명의 혼화제공장 직원들은 더 좋은 콘크리트 황금 비율을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17년 봄, 작지만 강한 삼표산업 혼화제공장의 도약이 다시금 기대된다.



2017년 그룹공채 1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현장 봄과 함께 찾아온 그룹공채 1기

봄을 닮은 싱그러운 미소가 유난히 돋보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27명의 그룹공채 신입사원들! 올해 신입사원은 ㈜삼표시멘트를 포함해 실시한 첫 그룹 통합 공채다. 이에 우리 그룹은 이들을 ‘그룹공채 1기’로 명명했다. 지난 3주간 그룹공채 1기라는 자부심으로 교육에 임한 신입사원들. SAMPYO WAY, UCC 제작, 사내의 강사 교육 및 현장 답사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밝은 웃음꽃이 가득했던 그룹공채 1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현장을 찾았다. 글·사진 홍보팀 이소정

신입 공채 교육, 더 강해졌다!

이번 공채는 여러모로 특별하다. 우선 교육 기간 및 실무 교육 비중이 늘어났다. 이는 현업 선배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 신입사원 교육이 사업 부문 소개와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위주였다면 이번 교육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주 차 교육에서는 개인 컴퓨터로 ‘근태 관리 등록’, ‘전표 작업’, ‘ECM 문서 작성’까지 업무 과정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실무 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신입사원 직무 배치 후 ESS, ERP, ECM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낄 당혹스러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교육이다.

3주 차부터는 신입사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 자체 교육도 도입했다. 각 사업부에서는 OJT(On the Job Training : 작업 현장에서 개별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를 실시해 직무를 비롯한 공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개발팀에서는 OJT 멘토링 일지와 상사 피드백을 통해 교육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번 그룹공채를 총괄한 인사총무팀 최윤길 상무는 사령장 수여식에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신입사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 김완일, 김민철 사원

2017년 그룹공채 신입사원

고현환 구민수 김건영 김규범
김기현 김민정 김민철 김완일
김웅비 김재치 김진호 나도원
박수환 박순현 백남범 신의진
이동섭 이병현 정선민 정윤수
정재혁 정찬혁 조두익 최윤석
허 찬 황석진 황채경

특명, 신입사원을 감동시켜라

신입사원의 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신입사원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리텐션(Retention : ‘유지’라는 뜻으로 회사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교육의 일환으로 1년 뒤 자신에게 보낼 편지를 영상으로 남겼다. 이번 그룹공채 1기는 사원 2년 차가 되는 내년 리텐션 교육 기간에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신입사원 시절의 자신의 풋풋한 모습과 마주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인재개발팀에서 준비한 신입사원 부모님과 지인들의 깜짝 입사 축하 영상 역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영상 속에서 삼표기초

소재 분체영업팀 김기현 사원의 부모님은 “아들 덕분에 회사에서 보내준 입사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며 김기현 사원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태어나서 처음 눈썹을 깎아봤어요.” 교육 소감을 묻자 삼표시멘트 전기팀 조두익 사원이 대뜸 눈썹 이야기를 했다. 이번 신입사원 교육 중 받은 이미지 메이킹을 몸소 실천해봤다는 뜻이었다. 깔끔해진 인상으로 선배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감에 찬 그의 표정을 보자 절로 미소가 나왔다. 조두익 사원의 독특한 답변만 큼이나 톡톡 튀는 신입사원들이 부서에 배치된 후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삼표에서 내딛는 첫 걸음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다가 오늘부터 각자의 부서에서 개별 교육을 받게 되어 더욱 설레고 기대됩니다. 저에게 있어 삼표란 ‘첫 시작’과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인으로서 첫 걸음을 뗀 만큼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삼표피앤씨㈜ 콘크리트설계팀 황채경 사원



삼표 신입사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그룹공채 1기 중에서 대표로 사령장을 받게 되어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삼표그룹의 가족 같은 반전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신입사원다운 열정과 패기로 선배님들을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삼표시멘트 기계설비관리팀 김웅비 사원

4분의 힘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심폐소생술 사례

생사의 순간, 빠른 대처로 동료를 살리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는 동료의 목숨을 구한 의인(義人)이 세 명 있다. 바로 품질팀 이상남, 김광렬, 박종섭 직원. 지난 2016년 9월 27일과 2017년 1월 8일에 이들은 각각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동료를 위기에서 구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박현철 사우의 동공이 풀려 있었고,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당장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김광렬 직원은 말했다. 처음 심폐소생술을 한 뒤에 박현철 직원은 잠시 의식이 돌아왔지만 다

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야 박현철 직원의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고 그를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었다.

박종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화 중 김명기 직원이 쓰러지자 즉시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덕분에 김명기 직원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혈관 질환



▲ 심폐소생술로 동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이상남, 김광렬, 박종섭 직원.

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전문가 과정이다. 한 번 이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 시험을 치러야 할 만큼 까다롭고 체계적이다. 임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현재 사무 기술직 직원은 100% 이수했고, 올해는 생산직 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환경안전팀에서 이토록 심폐소생술 마스터 과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실전에서 4분의 심폐소생술 골든타

임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다.

“무의식중에도 CPR 교육받은 게 생각났습니다. 체감상은 40초에서 1분이 경과한 것 같은데 나중에 들으니 실제로는 4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폐소생술 마스터 위한 철저한 교육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직원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심폐소생술 마스터 과정. 이는 6시간의 기초 CPR 교육을 이수한 후, 심폐 구조가 사람과 똑같은 기계로 시행하는 시험에서 80점 이상의 점수

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응급 상황을 겪은 이들 중에는 당황해 적절한 응급조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상남 직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감이 앞섰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자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던 그때, 환경안전팀의 심폐소생술 정기 교육이 없었으면 아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광렬 직원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은 ‘자신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경안전팀에서는 직원들의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마스터 과정을 택했다.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

운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 환경안전팀의 설명이다.

삼표인 지켜주는 빈틈없는 사고 예방 시스템

또 다른 안전 장치로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들 수 있다. 삼척공



▲ 4분의 골든타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삼척공장에서만 세 차례의 심폐소생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임직원들의 즉각적인 조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 앞으로도 저희 환경안전팀은 안전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안전 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운명을 좌우하는 4분, 심폐소생술은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



▲ 체계적인 교육으로 삼척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안전팀 박재호 팀장.

장은 사내 전화로 119에 전화하면 환경안전팀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환경안전팀에서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안전팀은 ‘안전보건챔피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CPR 과정뿐 아니라 추락·낙하·전기 등의 안전 부문 시험을 통과한 임직원만이 안전보건챔피언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12명의 안전보건챔피언이 안전 보건을 위한 사우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안전팀 박재호 팀장의 다짐에서 안전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았다.

삼표의 오늘을 만든 절약(節約)의 힘



▲ 매일경제신문 1972년 4월 19일자 5면 중.

강원산업을 키워온 動力源(동력원)은 ‘짜다’라는 것

기사의 핵심 문장 하나를 꼽자면 이 문장이 아닐까 싶다. 기사를 살펴보면 “강원산업의 3,000여 종 업원은 하나같이 원가 절감 의식이 뚜렷하다. 정 사장의 뜻대로 검소하다. 검소한 데서 출발한 원가 의식으로 낭비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고 강원산업을 소개한다. 강원산업의 모든 직원이 정인욱 회장의 ‘검소하자’는 경영 이념에 따라 원가 의식을 온몸으로 체득해 꼭 필요한 비용만 적재적소에 잘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 연료 업계, 특히 탄광 업계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원산업만이 건재한 이유도 바로 이 짠 경영 방식, 즉 ‘검소’와 ‘절약’ 덕분이라고 말한다.

※ 강원산업 : 1952년 고(故) 정인욱 회장이 설립한 강원탄광이 모태다. 1966년 강원산업(주)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당시 주력 사업이었던 연탄 수송을 위해 삼강운수(주)를 설립했다. 1974년 삼강운수(주)가 삼표산업(주)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건설자재 사업에 뛰어들었다.

45년 전 봄, 1972년 4월 19일자 매일경제신문 5면에는 삼표그룹의 모태인 강원산업의 원가 절감 운동이 소개되었다. 종이신문 한 면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분량으로 실렸는데, 당시 매일경제 기자는 강원산업의 어떤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 기사를 썼을까. 50년 역사를 가진 삼표그룹의 어제와 오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글로벌 가구 회사, 이케아. 이케아의 창업주 잉그바르 캄프라드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절약 정신’에 있다. 그의 절약 정신은 이케아 제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작은 나무토막까지 재활용함으로써 값싸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삼표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삼표그룹이 오랜 세월 건설기초소재 업계 선도 기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근원에는 절약의 미덕이 있다.

글 홍보팀 김선영 자료 제공 매일경제신문

강원산업이 뿌린 ‘씨앗’, 삼표그룹이 거둔 ‘열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오늘의 삼표그룹은 강원산업의 ‘짜다’라는 수식어가 잘 뿌리내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해보면 레미콘, 시멘트, 골재, 분체, 철 스크랩 등으로 사업 부문이 넓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과 기술은 훨씬 다양해졌다. 앞으로 삼표인들이 이를 각 현업에 적용하고 활용해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비를 사수하라! 레미콘 차주 연비 포상 제도

(주)삼표산업 레미콘물류운영팀은 매년 상, 하반기에 1회씩 전 사업장 레미콘 차주들을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 상위 10% 차주들에 한하여 상품권을 증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연비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열을 재활용하다, 폐열발전소 준공 및 운영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2004년 업계 최초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폐열을 활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폐열발전소를 준공해 가동하고 있다. 폐열발전소에서는 연간 13만MW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60억 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일구고 있다.

기술력 Up! 원가 Down! 고속 분기용 단조 텀레일 국산화

삼표레일웨이(주)는 단조 설비 용량의 한계로 고속분기용 단조 텀레일을 전량 수입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꾸준히 단조 공정을 개선해 단조 텀레일 국산화에 성공, 원가 절감을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송정)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원주~강릉 철도에 적용해 총 7억 4,000만 원을 절감했다.

※ 단조 텀레일 : 분기기에는 텀레일이라는 비대칭 모양의 특수 레일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일들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텀레일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텀레일 후단을 단조형상 변화 공정해 대칭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칭형 텀레일을 ‘단조 텀레일’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돈으로 탈바꿈시키는 마술, 슬러지 건조품 판매 계획

현재 (주)네비엔은 슬러지 건조품을 비용을 들여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화력 연소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올해 안으로 판매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삼표그룹 50년의 짠맛이 조금씩 단맛을 내고 있다.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 부단했던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단맛을 고객과 지역사회 등 주변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는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달콤함을 나누길 바랐던 20세기 강원산업이 21세기 삼표그룹에 전해준 선물 아닐까.



힘내라 우리 언니!

멋진 직장에 입사한 언니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동생이 편지와 간식을
준비했다. 오늘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동생이 쓰는 날! 환하게 웃는 자매의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좌)삼표시멘트 업무지원팀
박주영 사원 &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선도산림휴양팀
박선영 사원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입사한 언니를 응원하고자 동생 박주영 사원이 나섰다.
사랑하는 언니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와 자연을 지켜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직접 언니의 근무지를 방문한 것이다.
삼표시멘트에 몸담으며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사람들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는 동생,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숲을 아름답게 가꾸는 언니, '사람'과 '자연'을 위해 일하는 멋진 자매가 서로의 뭉클한 마음을 확인했다.



▲ 동생 박주영 사원(좌)이 언니 박선영 사원(우)의 근무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방문해 따뜻한 자매애를 보여줬다.

To. 사랑하는 작은언니

언니, 내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놀랐지? 나도 이렇게 언니 앞에
서 진지하게 편지를 읽으려니 많이 쑥스럽네. 그렇지만 사랑하
는 작은언니를 위해 용기를 내봤어.

큰언니랑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먼저 자리를 잡았을 때
언니가 그랬지. 부럽기도 하지만 다 자기 복이라고, 나는 내 일
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때 언니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타지에서 일하는 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
어. 그래서인지 언니가 하루빨리 삼척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지.

언니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과 언니의 부
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걸까? 감사하게도 올해 언니에게 좋은
일이 생겼지. 좋은 회사에 입사해 멋진 일을 하게 된 언니! 난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진심으로 축하해!

요즘 출근 전에 언니와 함께 엄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는
시간이 참 좋아. 매일 언니랑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해서
'설마 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 들어.

앞으로 또 다른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 그때
마다 서로 잘 다독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
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 번 입사 축하해. 동생이 언니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From. 귀여운 동생 주영이가



참된 리더를 말하다

충무공 이순신 의 眞情性 (진정성)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다.
이순신이 전사한 지 400여 년. 그의 인격과 리더십은 수백 년의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지금 우리는 이순신을 연구하고
배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글 유성은(<이순신처럼 생각하고 리더하라> 저자)

목표를 향한 전력투구

32세에 무인의 길에 들어선 이순신. 그는 54세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에 충성했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일화를 들어본다.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패한 후 조선 수군은 완전히 궤멸했고 조정은 황급히 백의종군해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명했다. 당시 남아 있는 전력은 전선 12척뿐. 그러나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육로를 이용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심한 고문으로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순신에게 이 여정은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왜병이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적의 동향을 살피며 이동했고 남쪽으로 가는 길에서는 민심을 수습했다. 피난민의 수효는 줄어들고 백성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초계를 출발할 때 군관이 고작 9명이었는데 각 고을을 지나면서 흩어졌던 군인들과 의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방 현감들도 만나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사용할 무기도 수습했다. 그 덕에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끌 수 있었다. 언제나 앞장서서 군사들을 독려한 이순신. 그에 비해 우리는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빈약하기 일쑤다. 어찌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승리를 위한 핵심 역량 키우기

이순신은 병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했다. 병서를 많이 읽어 병법에 능통했을뿐더러 특히 병법에 있는 선승구전(先勝求戰), 즉 미리 이겨놓고 난 후에 싸운다는 원칙을 지켰다. 군사들에 대한 기초 훈련도 혹독하게 했다. 또 최초로 함포 전술을 고안해냈는데, 왜군과의 함포전을 예상하고 그에 알맞은 전술과 함포 사격 훈련, 진법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군사 수는 절대 열세였지만 전력에 있어서는 강군이었다. 이게 바로 당시 이순신의 ‘이길 수 있는 조건’이자 핵심 역량이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금, 시설 등과 같은 물적 자원보다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지적자산을 창출해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개인 역시 특출한 핵심 역량이 있어야 험난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리더십의 완성은 신뢰받는 인격

리더십에서 생명과 같은 요소 신뢰. 이순신은 개인 역량은 물론 도덕성까지 뛰어났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신뢰받았던 요인을 살펴보면 1)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 청렴함, 정의를 지켰다. 2)모든 일에 솔선수범했고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3)연전연승해 부하와 백성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었다. 4)기존의 관습과 타성에 젖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5)독단적이지 않고 토의와 협력을 잘했다. 6)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평정심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이순신의 철학과 태도에서 우리는 신뢰로 완성되는 리더십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를 거울삼아 승리 쟁취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순신이 현재에 출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늘 적당한 긴장을 갖고 전쟁에 대비하라. 국가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핵심 역량을 키우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라. 그래서 주변국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나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승리를 쟁취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23전 23승의 신화를 이룬 이순신. 그의 철학과 리더십을 배운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역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 그 설렘의 순간

첫 등교, 첫 출근, 첫 출산, 첫 여행... 긴 인생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닥뜨릴 때마다 긴장과 설렘,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삼표 가족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삼표인의 추억이 어린 첫 순간을 사진과 함께 꺼내봅니다. 정리 편집실



대 상



금 상

바다 세상과 마주한 기쁨
물 공포증을 이겨내고 도전한 생애 첫 스쿠버 다이빙! 걱정과 긴장도 잠시, 환상적인 바다 세상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작고 귀여운 열대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나는 인어공주!
(주)삼표시멘트 충청영업팀 전희정 사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첫 여정
결혼하고 신희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혼자가 아닌 가족이 되어 시작하는 첫 여행인 만큼 의미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내게 주문을 걸어봐 무겁지 않다고~ #이게바로 #남자의길
(주)삼표산업 여주영업소 공장영업과 임윤섭 사원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막내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습입니다. 어느덧 5학년이 된 아들이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잘 완주하길 바랍니다.
(주)삼표시멘트 TSI팀 윤경상 부장



생애 처음 비를 맞은 우비 소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를 맞으며 엄마 뒤를 졸졸, 한 손에는 민들레꽃을 들고 입으로 후~! 우리 집 귀여운 우비 소녀랍니다.
(주)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김기덕 별정



은 상

첫 워크숍, 그때를 추억하며
물류영업소장 발령 후 첫 워크숍. 같은 영업소, 같은 숙소, 같은 옷, 같은 생각으로 뭉쳐 즐겁게 일하고 놀던 그 시절을 추억해봅니다.
(주)삼표 DT영업팀 변동진 차장



자전거 국토 종주 스타트!
남한강을 지나 이화령을 넘고 낙동강을 따라 부산 하구둑까지, 아들과 함께 자전거 국토종주 시작!
삼표피앤씨(주) CS팀 조성열 부장



사회생활의 시작, 첫 아르바이트
인도 커피 가게에서 시작한 첫 아르바이트, 제 두렵던 이목구비와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인도인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주)네비엔 영천사업소 소각영업팀 한정협 대리



동 상

보물처럼 찾아온 첫아이
거듭된 유산 끝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보물, 첫째와 첫 여행에서 아침 산책하다 찰칵!
(주)삼표산업 서부영업소 공장영업과 윤지원 대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2013년에 만나 2년 후 결혼 생활 시작!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합니다.
(주)삼표 경영관리팀 윤준석 대리



씩씩한 아들의 첫 승마 도전기
저와 봉어뽕인 아들! 처음으로 말을 탔는데 손도 흔들며 잘 적응하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주)삼표시멘트 포항시멘트팀 강정민 과장

생강나무 꽃이 활짝 핀 언덕에 달래 손이 제법 자랐다. 달래가 많이 나는 곳은 양지바르고 돌이 많은 비탈길이다. 그래서 달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캐려면 나뭇잎이 필요하다. 달래를 캔 김에 시장에 가서 봄동을 사와 달래와 같이 무치고, 달래장도 만들고, 된장찌개에도 넣었다. 나는 2001년 귀농을 해서야 호미를 처음 만져보았다. 냉이와 달래는 그저 시장에서만 사 먹어보았다. 그러니 귀농해서도 집 주변의 온갖 풀들이 모두 잡초로만 보였다. 그런데 2002년 봄, 강화 교동이 고향이신 후배 어머니가 장 담그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셔서 내가 간장을 달이는 동안 집 주위를 휘돌러보시고는 허를 끝끝 찼다. “아니, 단비 엄마. 이 나물을 왜 그냥 놔뒀어.” “그게 나물이에요?” “원추리잖아. 저쪽에 참취, 곰취, 미역취도 있네. 여기는 귀한 나물 천국이네. 옛날에는 어린 손은 웬만하면 다 나물로 해 먹었어.” 후배 어머니는 내게는 그저 이름 없는 잡초였던 풀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셨다. “이름 없는 꽃은 없어. 나도 결혼한 뒤에는 내내 도시에서 살아서 나물을 캐본 게 35년 만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다니며 배운 나물이 다 기억이 나네.” 후배 어머니는 그날 캔 갖가지 나물을 데쳐 초고추장에 무쳐주셨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봄나물 무침의 맛은 황홀했다. 봄이면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주던 나물이 여름이 되자 하양, 노랑, 보랏빛 꽃밭을 만들었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야생화 도감과 나물 도감을 샀다. 그리고 그 도감을 들고 나물을 찾으러 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이듬해 봄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아닌지, 이름은 뭔지 헛갈렸다. 그래도 봄에 공부방 아이들이

TOPIC



(주)삼표 사회공헌팀,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 개최

(주)삼표 사회공헌팀이 팀 신설 이후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사회공헌팀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 위치한 ‘허브빌리지’에서 연천군 지역 아동 및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 ‘삼표 와 Green 지구’를 개최했다. 금번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미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재와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미니 화분, 에코백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과 게임 등을 통해 자원의 생산과 폐기, 재활용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상에 하나뿐인 에코백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자연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금번 행사는 우리 그룹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공헌팀의 첫 번째 활동으로, 향후 우리 그룹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에 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커뮤니케이션본부 송석훈 상무는 “이번 캠프를 통해 연천 지역 어린이들이 환경 친화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베푸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삼표

(주)삼표 인재개발팀, 2017년 승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삼표 인재개발팀은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3월 15일부터 4월 27일 까지 18일에 걸쳐 2017년 승진자 총 192명을 대상으로 ‘2017년 승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017년도 승진자는 대리 64명, 과장 59명, 차장 39명, 부장 30명이다. 이번 승진자 교육에서는 이철 부사장을 비롯한 사내외 강사가 ▲대인 관계(대리) ▲갈등 관리(차장) ▲창의적 사고(과장) ▲부하 육성(부장)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승진자들은 새로운 직급에 요구되는 역할을 인식하고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승진자들이 새 직급에 빠르게 적응해 업무능률을 최대로 끌어내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재 구축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7년 신입 대리 승진 교육(1차).

(주)삼표 인사팀, 신규 채용 솔루션 도입

(주)삼표 인사팀은 지난 1월 신입 및 경력직 채용을 위한 ‘신규 채용 솔루션’을 도입했다. 신규 채용 솔루션이란 온라인을 통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면접 시 종이 서류 대신 노트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입사 지원자 통계를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솔루션 도입과 함께 채용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발생하던 글자 수 오류 등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여 지원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기존의 직무 소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자가 직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개발팀 송희현 부장은 “신규 채용 솔루션이 다소 생소한 방식이라 우려를 했었지만 금번 2017년 그룹 대졸 공채 진행 시 사용해본 결과, 채용 진행 및 분석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규 채용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새롭게 개편된 삼표 채용 홈페이지
(<https://sampo.recruiter.co.kr>)

삼표그룹 감사실,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삼표그룹 감사실은 1월 20일 서울 삼경C&M교육센터에서 '2017년 삼표그룹 감사실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연구 및 분석함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개인별 테마 발표를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경청 감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량강화 워크숍이 실제 감사 업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박종건 차장, 민경식 차장, 안성원 과장, 손형주 부장, 남윤식 과장, 하성희 부장, 자규남 과장
(왼쪽 아래부터) 윤정용 부장, 주경청 감사, 강대홍 부장, 고서희 사원.

㈜삼표 커뮤니케이션본부, 사업 부문 스터디 정기 세미나 실시

㈜삼표 커뮤니케이션본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사업 부문 스터디 정기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본부 산하 17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는 그룹 사업 영역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를 돕고 개인별 발표 역량 및 토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매주 금요일에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시멘트, 분체, 레미콘, 골재 등 그룹의 사업 부문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첫 발표를 맡은 제도개선팀 안정하 사원은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에 관해 스터디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그룹 사업 부문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을 업무에 적극 활용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삼표산업

㈜삼표산업 (주)유니콘 합병, 레미콘 사업 시너지 강화

㈜삼표산업과 (주)유니콘이 지난 3월 28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갖고 합병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주)유니콘은 5월 1일부로 '삼표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금번 합병은 (주)삼표산업의 핵심 거점인 수도권 지역과 (주)유니콘의 주요 거점인 충청권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앞으로 (주)유니콘은 '삼표'라는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영업 및 구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주)삼표산업 레미콘본부 송재철 상무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이중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향후 호남 및 영남권 진출로 전국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송도공장 권현섭 부장, 환경보전 공로표창장 수상

㈜삼표산업 송도공장 권현섭 부장은 지난 3월 22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보전 공로표창장'을 수상했다. 권현섭 공장장은 공장 진입로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인천남동구청과 약수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자인 권현섭 부장은 "이번 개인 수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송도공장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공장 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는 하천정화활동, 수질보전, 물 절약, 물 사랑을 실천한 물 관리 시책 유공 민간단체, 기업인, 학생 등 35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 (주)삼표산업 송도공장 권현섭 부장.

삼표기초소재(주)

삼표기초소재(주) 당진F/A공장, 무재해 8배 달성 인증

삼표기초소재(주) 당진F/A공장은 지난 3월 15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 8배 달성 인증'을 받았다.

'무재해 목표 달성 인증'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운동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목표한 무재해 시간을 달성하면 인증서를 수여한다. 당진F/A공장의 총 무재해 시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16년 7월 22일까지 3,580일(9만 시간)로 처음 목표한 시간의 약 8배를 달성한 것이다.

당진F/A공장 공장장 황석우 부장은 "무재해 8배수 달성은 당진F/A공장 전 직원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안전은 회사의 존속과 발전의 근간인 만큼 당사 현장 중 최고 무재해 달성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삼표기초소재(주) 당진F/A공장 박우경 차장.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물류사업부문, 정진호 취향식 및 명명식 행사 개최

㈜삼표시멘트 물류사업부문은 지난 3월 27일 감천항 2부두 1번석 정진호 선상에서 정진호 취향식 및 명명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진호 취향식은 안전지원제를 시작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정대현 부사장을 비롯한 30명의 임직원 등 내빈이 취향식에 참석하여 정진호의 신규 취향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선박인 유진호에 이어 두 번째 선박인 정진호의 명명식과 취향식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두 선박은 우리 그룹이 물류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진호는 수도권과 충청권 시장 물량 운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매입하여 8개월간의 개조공사 끝에 올 2월 항해 준비를 마쳤다.



▲ (왼쪽부터) 해성엔지니어링 전용성 사장, 여수해양조선소 강경선 전무, 충무전기 이승규 사장, ㈜삼표시멘트 최병길 사장, 정대현 부사장, 이철 부사장, 이성연 부사장, 정진호 상무.

㈜삼표시멘트, 2016년 안전 활동 우수 부서 및 우수자 시상

㈜삼표시멘트는 지난 2월 23일 삼척공장 사무동 2층 강당에서 ‘안전활동 우수 부서 및 우수 종업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기계팀은 부서 내 활발한 안전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 안전 활동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안전명장으로는 기계팀 정병호 반장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기계팀 위윤복 대리, 기계팀 오무진 대리, 구매팀 전송아 사원이 각각 안전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포상금과 표창장을 받았다.

환경안전팀 김수정 과장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동료에게 안전의식을 전파하고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부서 및 종업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며 “덕분에 임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삼표시멘트 기계팀 정병호 반장.

㈜삼표시멘트, 정월대보름제 행사에서 현장홍보방 운영

㈜삼표시멘트는 지난 2월 10~11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관한 정월대보름제 행사에서 현장홍보방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척공장 임직원 및 가족은 시민들에게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과 기념품 및 간식을 제공했으며 45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기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삼표시멘트를 홍보했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인력개발팀 오길석 대리는 “정월대보름이라는 민속명절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에게 민속놀이 체험으로 회사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참가하여 회사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표시멘트 자원봉사단에 임직원 사랑의 손길 이어져

삼표시멘트 봉사단 활동을 응원하는 임직원들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개발팀에서는 사내 캠페인 우승으로 받은 상품권 전액을 봉사단에 기탁했고 전기팀에서는 쌀을 기증했으며, ㈜삼표시멘트 단양공고 동문회는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들이 기탁한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쌀은 삼척시 사회복지관에 전달되었다.

개인 후원도 이어졌다. 자원팀 신승철 기사는 ‘2016년 삼척시 자원봉사대회상’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을 봉사단과 삼척시에 기탁했고, 기계팀 김흥탁 반장(기장) 역시 쌀을 기증해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대외협력팀 김동수 대리는 “봉사단의 꾸준한 활동에 힘입어 시작된 기부 행렬이 릴레이처럼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표피앤씨㈜

삼표피앤씨㈜, ‘2017년 산업환경사업본부 협력회사 경쟁력 간담회’ 참석

삼표피앤씨㈜는 지난 3월 23일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최하는 ‘2017년 산업환경사업본부 협력회사 경쟁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협력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담당 임원은 건설 부문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공법 개선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력회사 간 Win-Win 전략을 제언하는 오찬 자리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삼표피앤씨㈜ 최명식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삼성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회사에게 MDW(Mega Double-Wall), 중공기둥 등 삼표피앤씨㈜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신입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직급	입사 일자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관리과	양경호 사원	2017-02-01
	동서울공장 품질팀	나우선 사원	2017-02-13
삼표	F/C영업팀 여주영업소	권순웅 사원	2017-02-01
	성수공장 관리과	김수진 사원	2017-03-20
삼표산업	성수공장 관리과	정중웅 사원	2017-02-13
	성수공장 관리과	최영환 사원	2017-02-01
	송도공장 관리과(출하)	김태현 사원	2017-03-24
	송도공장 품질과	임성민 사원	2017-02-06
	원료검사팀	가요한 사원	2017-02-06
	인천공장 관리과	임운승 사원	2017-04-03
	재무팀	엄동현 사원	2017-02-13
	측량팀	박헌일 사원	2017-04-03
	풍납공장 관리과	주영진 사원	2017-02-01
	풍납공장 품질과	장영철 사원	2017-02-06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나영찬 사원	2017-01-23
	제천공장 생산팀	김재건 사원	2017-02-13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류창우 사원	2017-02-13
	제천공장 생산팀	장용현 사원	2017-03-03
	청주공장 관리공무팀	이하진 사원	2017-02-06

경력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직급	입사 일자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영업팀	강수아 사원	2017-04-03
네비엔	설계팀	윤인현 대리	2017-02-01
삼표	사회공헌팀	김희준 사원	2017-03-24
	해운팀	김광림 사원	2017-03-20
삼표기초소재	당진Slag공장 생산팀	이성민 사원	2017-03-20
	정비팀 양주정비	김시회 주임	2017-04-03
삼표레일웨이	PST팀	김유봉 차장	2017-03-22
	연마유지보수팀	권동현 사원	2017-03-06
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정순철 사원	2017-03-06
	안양공장 관리과	박영삼 주임	2017-04-03
	양주시업소 관리팀	한형배 주임	2017-02-01
	총무팀	민경애 사원	2017-03-17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박상수 사원	2017-02-06
삼표피앤씨	CS팀	이영택 과장	2017-02-06
유니콘	아산공장 관리과	김대석 주임	2017-03-13
홍명산업	관리팀	김경환 대리	2017-02-06



독자 퀴즈

다음은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 일까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이다. 기억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면, ()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기억보다는 상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은 중동에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199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오슬로 협정'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이츠하크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처럼 올봄 삼표 가족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 도전하길 바란다.

✉ 빈칸을 채워서 5월 20일까지 이메일[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삼표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① 인천, 서울, 삼척 ② 석화석 대체재 ③ 휴게(Hygge)



당첨을 축하합니다

㈜삼표 시멘트SM팀 이지윤 사원

㈜삼표산업 청원영업소 공장영업과 김은정 사원

㈜삼표산업 총무팀 이지용 차장

㈜삼표산업 평택영업소 공장관리과 박종호 차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생산2팀 박현철 기사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김선영 사원 sy_kim@sampyo.co.kr

레미콘 (주)삼표산업 레미콘기획팀

한신 사원 hst206@sampyo.co.kr

골재 (주)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대리 clzls77@sampyo.co.kr

철도 삼표레일웨이(주)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jh6906@sampyoenc.com

건설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sso4942@sampyopnc.com

분체 삼표기초소재(주)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철스크랩, 환경자원 (주)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주)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물류 (주)삼표 신규영업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시멘트 (주)삼표시멘트 인사총무팀

최진호 과장 jinho.choi@tongyang.co.kr